

사회의식의 차별현상 : 현실인식, 갈등 의식 및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권 태 환*

<차례>	
I. 머리말	IV. 집단갈등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II. 분석의 틀	V. 일반 가치지향
III. 현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VI. 맷는말

I. 머리말

이 글은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이라는 커다란 주제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회의식’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누구나 당면하게 되는 과제는 우선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념을 설명하는데 전후세대의 관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위관심영역에 속하는 ‘사회의식’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다음, 자료의 문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닐 수 없다. 어떠한 종류의 자료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영역과 항목은 한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전후세대를 ‘전쟁 또는 한국동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연령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때 관심의 초점은 아마도 전쟁의 경험여부가 사람들의 행동이나 가치지향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쏠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의 세대의 효과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행동이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는 연령효과나, 사회경제적 지위나 배경에 따라 형성되는 행동이나 태도의 차별현상과는 구별된다. 만

* 서울大 社會大, 社會學

약 ‘전후세대’를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떤 단순히 연령집단의 개념으로만 파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대는 연령집단의 총체적인 성격을 뜻하게 되고 세대효과와 위에서 얘기한 연령효과 내지 사회경제적 배경효과와는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자료의 제한때문에 결코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역사적 사건의 경험공동체로서의 세대의 효과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여기에서는 관념적 또는 이론적 용어로서의 ‘사회의식’의 개념을 명백히 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 주제가 어떠한 이론적인 틀이나 자원과 연관되어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이제까지 ‘의식’이라는 말이 사회과학에서는 이론적 용어로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어로서 매우 막연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사회의식’의 ‘사회’의 내용규정도 매우 막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 의미를 갖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험적인 자료로부터 사회의식지표의 구성을 시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의식의 영역을 시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주제의 성격으로 보아 이 글을 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는 아마도 경험적인 조사자료일 것이다. 실제 가치관 내지 각종 의식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한 사회조사는 1960년대부터 계속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반면 심층면접이나 관찰을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려 할 때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다. 자료에 있어서 또 다른 중대한 한계의 하나는 시점을 달리한 가치관이나 사회의식 조사들 사이에 비교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가령 1960년대에 실시된 조사와 최근에 실시된 조사들 사이에는 비교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 물론 이러한 조사항목의 전면적인 변화는 나중의 조사자들이 전에 행한 조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사회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연구자들의 관심영역의 변화와 조사의 기본 목적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 상이한 시점의 조사자료를 이용한 종단적 분석은 자료의 비교성 결여로 매우 어렵거나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1986년 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국민의식조사’ 자료만을 이용하여 의사종단분석(Quasi Longitudinal Analysis)

을 시도하고 있다. 이 조사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행해졌다. 그 하나는 집단표본 추출방법에 의한 전국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며, 두번째 것은 전국 11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표를 이용한 조사이다(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의 일차제표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전환기의 한국사회—국민의식조사자료집—」, 1987>에 수록되어 있다).

II. 분석의 틀

자료의 분석을 위해 우선 중요한 것은 ‘사회의식’의 관념을 경험적인 자료와 연관시켜 어떻게 한정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분석대상 자료에 기초해 사회의식을 크게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첫째는 사람들이 현재의 여러 사회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를 의미하는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이다. 다음은 집단들 사이에 갈등의 정도, 불평등 또는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일반적인 가치지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글에서 취급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I. 현실문제의 인식

총괄적인 현실평가

현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사회현상의 상황변화에 대한 평가

II. 갈등에 대한 인식

집단갈등에 대한 인식

불평등구조 및 상류층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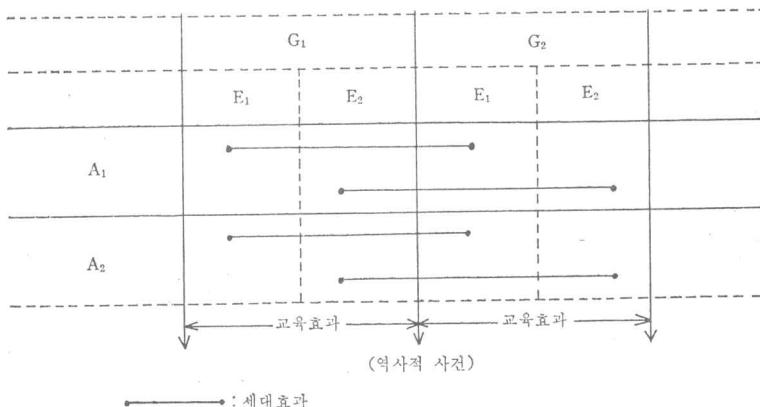
III. 가치지향

일반적 가치

위에서 제시한 사회의 각종 차별현상은 우리 사회의 주요집단들이 경험해 온 생활세계를 이해함으로써만 적절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의 경험세계를 대표하는 요소로서 역사적 사건의 경험, 교육환경, 개인적 생활경험의 세 가지를 택하였다. 이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비교는 역사적 사건의 경험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후세대에는 대학생과 20대 연령집단을, 전쟁을 경험

한 집단으로는 30대와 40대의 응답자를 택하였다. 대학생과 20대 연령집단은 일부 중복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글에 사용된 조사자료에서는 세대주가 주응답자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20대 연령집단에 속한 응답자는 주로 20대 후반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 대학생집단과 20대 연령층 사이의 나이의 중복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30대와 40대는 그들이 어린 시절의 사회화 과정에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거나 전쟁당시 성인으로서 전쟁의 영향을 가장 절실히 체험한 세대에 의해 직접 사회화되었다는 점으로 고려하여 전전세대로 규정하였다.

교육이 우리 사회의 경우 개인의 행위나 가치의 설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사회인식에 관한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환경과 대학교육환경 사이에는 대체로 상반된 의미는 갖는 것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교육은 체제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세뇌에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대학교육환경은 적어도 1960년 이후, 또는 그 이전부터 체제비판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적인 생활경험을 대표하는 변수로는 연령을 택하였다. 이 글에서는 간단히 세대구분을 시대적인 환경, 교육환경은 특정 이념·가치에의 노출, 그리고 연령은 생활주기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설정하고 있다. 이들 변수를 포괄하는 분석의 틀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정적인 분석의 틀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조사자료를 가지고는 위의 그림에서, G_1 에서는 A_1E_1 과 A_1E_2 , 그리고 G_2 에서는 A_2E_1 , A_2E_2 의 부분밖에는 다를 수 없다. 즉 엄격한 의미의 연령효과나 세대효과는 다를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A_1E_1 과 A_2E_1 또는 A_1E_2 와 A_2E_2 사이의 차이는 연령 및 세대의 효과가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세대효과와 연령효과의 방향과 성격을 대조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바로 이러한 가정에 입각하여, 조잡하나마 세대효과와 연령효과의 상대적인 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이 글에서와 같이 세대의 구분을 중요한 사건의 경험여부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세대는 주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두 집단 사이에 행동이나 가치지향에 있어 격리효과를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도 절진적 또는 연속적이라기 보다는 급진적 또는 단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 행동이나 가치지향에 있어서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연령을 수령효과를 가지며, 그 효과도 절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을 사용하여, 대학생, 20대, 30대, 40대의 4개의 연령 및 세대집단들 사이의 차이의 유형을 비교할 경우, 세대효과와 연령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에서 제기될 수 있는 또 한가지 문제는 전후세대란 말이 대표하고 있는 ‘전쟁의 경험’이 과연 세대구분에 있어 얼마나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사회와 같은 빠른 변화의 소용돌이에 말려 있는 곳에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의미가 그것을 정확한 사람들의 의식을 일생 동안 지배할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가령 현재 대학생과 40대의 대학출신 사이에 어떤 특정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두 시점 사이의 대학교육환경의 일관성의 가정과 전쟁경험과 주어진 현상의 인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가정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전쟁의 경험 여부에 의해 그것이 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빠른,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개별사건의 의미는 통상 쉽게 희석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적인 관념하에 자료는 정리·제시되었다. 자료제시의 형식과 표본의 크기는 아래와 같다. 비록 양적인 조사자료가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어떠한 통계학적인 추론이나 분석도 행하지 않고 있다. 이 점

은 이 글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자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리고 모든 표가 같은 형식으로 요약,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진행에 커다란 장애는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제시의 형식과 표본의 크기

세대·연령 교육환경	대학생	20대	30대	40대
	고교 이하	—	55	158
대학 이상	504	60	167	158

III. 현실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1986년 말 사회과학연구소의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평가를 정치, 경제, 사회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묻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은 그들의 배경에 관계없이 세 영역 모두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스럽다는 태도를 나타낸다. 특히 정치현실에 대한 불만의 정도는 매우 높았고, 가장 낮은 불만의 대상은 경제현실로 나타났다. 우선 여기에서 눈에 띠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현실을 불만스럽게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만의 정도는 교육의 정도(여기에서는 고교졸업 이하와 대학재학 또는 중퇴 이상으로 구분)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그리고 만족도의 차이가 고교 이하의 집단에서는 연령집단들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대신 대학 이상 집단에서는 높은 연령집단으로 갈수록 불만의 정도가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40대 연령집단에 이르면 학력(이 분석에서 채택된 개념으로

<표 1> 총괄적인 현실평가 (매우 불만 -10점, 매우 만족 +10점)

		대학생	20대	30대	40대
ㄱ. 정치현실에 대한 만족도	고교 이하	—	-3.2	-3.5	-2.6
	대학 이상	-7.4	-7.8	-5.7	-4.4
ㄴ. 경제현실에 대한 만족도	고교 이하	—	-0.3	0.3	-0.3
	대학 이상	-4.0	-3.5	-1.9	-0.9
ㄷ. 사회현실에 대한 만족도	고교 이하	—	-2.5	-2.5	-1.8
	대학 이상	-4.8	-4.6	-3.5	-2.8

는 교육환경을 의미)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최소화된다.

<표 1>에서 명백한 것은 교육환경이 전반적인 현실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대학교육환경이 현실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점, 그리고 대학 이상 교육집단에서는 평가영역에 관계없이 세대간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생활주기가 후기로 진행해 감에 따라 교육의 효과는 희석되고 따라서 태도의 수렴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진 13가지 항목에 대한 심각성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조사에서 선택된 13가지 항목은 편의상 다시 생활환경, 도덕 및 가치, 일탈행동, 갈등 및 불평등의 4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구분내용과 조사결과는 <표 2>에 수록되어 있다.

‘전혀 문제가 없다’를 0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를 10점으로 하여 각 항목의 평균점수를 평점한 결과에 따르면 ‘비밀파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평균평점이 5를 넘고 있다. 즉, 문제가 심각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문제로서 논의가 되고 있는 항목들만이 질문에 포함되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생활환경의 지표로서 선정된 인구, 공해 및 주택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해와 인구문제는 거의 모든 관찰집단에서 8점 내외 또는 그 이상의 점수를 보인다. 인구문제의 경우 그 심각성의 인식에 있어 집단들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구문제의 인식에는 교육환경, 세대의 차이, 생활주기 모두가 별 중요한 설명요인이 되지 못한다. 공해의 평가에 있어서도 세대와 연령의 차별설명요인으로서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학력에 따른 차이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일관성 있게 관찰된다. 특히 대학생 집단에서 공해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엄청나게 높다. 한편 주택에 대해서는 그 차이는 크지 않지만, 높은 연령집단에서 그리고 고교 이하의 학력집단에서 예외없이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낮은 연령집단에서 주택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무주택 가구비율이 이 연령층에서 높다는 데

〈표 2〉 현실적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0~10: 전혀 문제없다, - 아주 심각하다)

		대학생	20대	30대	40대
ㄱ. 생활환경					
인구	고교 이하	—	8.7	8.2	7.9
	대학 이상	8.0	8.1	7.8	8.4
공해	고교 이하	—	8.0	8.2	7.9
	대학 이상	9.6	8.4	8.6	8.6
주택	고교 이하	—	7.4	6.6	6.4
	대학 이상	8.0	7.7	7.3	6.8
ㄴ. 도덕 및 가치					
노인문제	고교 이하	—	6.9	7.0	6.8
	대학 이상	7.5	6.8	7.2	6.6
사회풍조	고교 이하	—	7.3	7.1	7.4
	대학 이상	8.4	7.4	7.8	7.8
도박	고교 이하	—	6.1	6.0	5.9
	대학 이상	6.0	5.6	5.3	5.3
가치관의 혼란	고교 이하	—	6.2	6.5	6.2
	대학 이상	8.3	7.7	7.5	7.5
ㄷ. 일탈행동					
비밀파티	고교 이하	—	4.1	4.1	4.1
	대학 이상	4.3	4.1	3.9	4.7
부동산투기	고교 이하	—	6.5	6.4	6.0
	대학 이상	7.5	7.2	7.0	6.7
범죄	고교 이하	—	7.6	8.0	8.1
	대학 이상	7.3	7.6	7.7	7.8
부정부패	고교 이하	—	7.6	7.3	6.9
	대학 이상	8.8	8.6	7.8	7.7
ㄹ. 갈등 및 불평등					
노사분규	고교 이하	—	5.9	5.8	5.8
	대학 이상	7.2	7.2	6.0	6.3
소득격차	고교 이하	—	7.8	7.8	7.6
	대학 이상	9.1	9.0	8.4	7.9
ㅁ. 총 평균	고교 이하	—	6.9	6.8	6.7
	대학 이상	7.7	7.3	7.1	7.1

에서, 그리고 대학 이상 학력집단의 경우는 질적인 측면에서 또는 지위평가의 척도로서의 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 생활환경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보다 직접 연관이 된 것일수록 태도의 차별현상을

뚜렷히 보인다는 가설을 끄집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 가치영역에 속하는 지표로는 노인문제, 사치풍조, 도박, 가치관 혼란의 4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가운데 도박에 대한 심각성의 평가가 비교적 낮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정도로 그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다. 도덕 및 가치영역에서 공통된 현상의 하나는 대학생 집단에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에서보다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학교육환경의 효과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노인문제와 사치풍조에 대한 평가에서는 학력과 연령(또는 세대)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도박과 가치관혼란의 경우에 학력별 차이는 보이지만 도박은 대학 이상 집단에서 그 심각성이 낮게 평가되어 일반적인 대학교육의 효과에 대한 가능성은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일탈행동의 범주로 분류된 ‘범죄’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80년대의 변화와 미래의 변화전망 모두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의 정도는 학력집단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앞의 현실문제의 심각성 평가에서와는 달리, 범죄와 부정부패 모두에 있어 대학 이상 학력집단이 연령에 관계없이 그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같은 교육환경에 속하는 집단 안에서 연령별 차이의 양상은 고교 이하 학력집단과 대학 이상 학력집단 사이에 차이를 보인다. 고교 이하 학력집단에서는 연령집단별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대학이상 학력집단에서는, 80년대 범죄상태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로 낮은 연령집단에서 더욱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부정부패의 심각성 변화와 그 전망에 대한 평가는, 위의 현실문제의 현황평가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대학 이상 교육집단에서 명백한 세대간의 차이를 보인다.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항목으로는 인권, 교육의 질, 여가와 오락, 정신건강을 선택하였다. 이 가운데 여가와 오락의 기회는 모든 집단에서 다수가 80년대에 들어와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더 나빠진 것으로, 고교 이하 집단에서는 더 좋아진 것으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 학력집단 사이의 평가의 차이는 인권과 정신건강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적인 기회에 관한 항목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지만 비물질적인 생

활조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는 특히 대학 이상의 학력집단에서 강하다. 반면 연령집단들 사이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인식에 있어 별로 의미있는 차별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른 항목들에 있어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삶의 질의 범주에 속하는 항목들에 대한

〈표 3〉 사회현상의 상황변화에 대한 평가 (나빠졌다 -10, 줄어졌다 +10)

	대 학 생	(1) 80년대의 변화			(2) 앞으로의 전망				
		20대	30대	40대	대 학 생	20대	30대	40대	
I. 전통적 인간관계									
이웃인심	고교 이하	—	-3.1	-2.6	-2.2	—	-1.3	-2.3	-0.8
	대학 이상	-6.8	-5.0	-5.3	-2.7	-3.9	-3.7	-3.2	-1.3
가족관계	고교 이하	—	2.0	2.5	3.5	—	4.0	3.3	3.2
	대학 이상	-1.4	0.3	0.5	2.4	0.3	1.5	0.7	3.2
친척관계	고교 이하	—	0.8	1.2	1.3	—	2.3	1.3	1.7
	대학 이상	-3.6	-0.3	-1.3	-0.1	-1.4	0.0	-1.0	0.5
II. 생활환경									
공 해	고교 이하	—	-4.2	-5.6	-4.9	—	-1.5	-2.8	-2.7
	대학 이상	-7.1	-7.2	-6.8	-4.4	-3.1	-4.2	-3.2	-0.4
주택	고교 이하	—	3.1	3.2	4.3	—	4.7	4.6	4.9
	대학 이상	1.8	2.7	2.4	4.1	3.1	4.3	4.0	5.1
물 가	고교 이하	—	3.6	1.7	3.6	—	3.3	2.5	3.7
	대학 이상	1.8	2.0	3.2	4.6	1.4	0.2	2.1	3.7
세 금	고교 이하	—	-2.9	-3.3	-1.8	—	-0.9	-1.0	-0.8
	대학 이상	-5.7	-4.8	-3.6	-3.5	-2.0	-2.7	-2.3	-1.6
III. 일탈행동									
범 죄	고교 이하	—	-5.0	-4.5	-5.0	—	-2.0	-2.8	-1.4
	대학 이상	-6.9	-6.5	-6.5	-6.6	-4.3	-4.2	-3.4	-1.3
부정부패	고교 이하	—	-1.5	-1.2	0.2	—	0.6	0.1	0.5
	대학 이상	-5.5	-5.3	-2.8	-2.5	-2.5	-4.1	-0.8	0.0
IV. 삶의 질									
인권	고교 이하	—	-0.6	-1.1	-0.1	—	3.6	1.7	3.1
	대학 이상	-3.3	-3.0	-3.9	-2.5	1.2	-0.5	2.0	0.7
교육의 질	고교 이하	—	4.2	4.3	3.0	—	6.9	5.6	5.7
	대학 이상	-2.0	-2.5	-2.2	-1.3	3.1	2.5	3.2	4.3
여가와 오락	고교 이하	—	4.5	3.2	2.7	—	5.8	4.9	4.4
	대학 이상	5.5	3.2	5.2	4.5	5.9	5.2	6.2	6.5
정신건강	고교 이하	—	-2.9	-2.2	-2.1	—	1.1	0.1	-0.7
	대학 이상	-6.8	-4.0	-4.1	-3.4	-3.6	-2.7	-0.9	-1.1
IV. 총평균	고교 이하	—	0.2	-0.3	0.2	—	2.0	1.2	1.6
	대학 이상	-3.1	-2.3	-1.9	-0.9	-0.4	-0.6	0.3	1.4

미래의 전망은 과거의 평가에 비해 훨씬 더 긍정적인 경향이 보인다.

<표 3>에 제시된 각종 항목의 상황변화에 대한 평가의 유형은 항목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에 제시된 13개 항목의 총평균으로 계산된 총괄적인 상황변화에 대한 평가에서도 역시 명백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학력집단 사이에 평가가 다르다. 대학 이상 학력집단이 보다 부정적으로 상황변화를 인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는 약화되고 있다. 반면 고교 이하 학력집단에서는 별로 의미있는 연령집단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전반적인 현실의 상황변화에 대한 인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의 효과이며, 그 효과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얇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높은 학력집단의 경우에는 누적된 생활경험이 상황변화 인식에 있어 중요 요소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집단갈등 및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이 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의식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면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8쌍의 집단들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다고 보는지를 묻고 있다. 8개의 쌍은 여당과 야당, 군과 민간, 재벌과 서민, 공무원과 시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기업가와 근로자, 도시사람과 농촌사람, 영남 사람과 호남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의 결과는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표 4>에 수록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위의 8쌍 가운데 가장 심각한 갈등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식된 것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재벌과 서민이다. 이들의 경우 8.0에서 9.0에 이르는 매우 높은 점수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학력을 통제했을 때 연령집단들 사이에 별로 의미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학 이상 학력집단이 고교 이하 학력집단에 비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재벌과 서민 사이에 갈등이 약간이나마 더 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갈등상태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기업가와 근로자집단이다. 특히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층에서 이 두 집단 사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평

〈표 4〉 집단갈등에 대한 인식 (0~10 : 아주 작다, — 아주 크다)

		대학생	20대	30대	40대
여당과 야당	고교 이하	—	8.5	8.4	8.2
	대학 이상	8.7	8.8	8.8	8.7
군과 민간	고교 이하	—	4.6	5.3	4.7
	대학 이상	7.2	7.1	7.0	6.7
재벌과 서민	고교 이하	—	8.5	8.5	8.0
	대학 이상	9.0	8.9	8.8	8.5
공무원과 시민	고교 이하	—	4.7	5.3	4.7
	대학 이상	5.9	6.0	5.8	5.7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고교 이하	—	6.3	6.3	6.3
	대학 이상	6.9	6.5	6.6	7.0
기업가와 근로자	고교 이하	—	6.5	7.1	6.4
	대학 이상	8.2	7.9	7.5	7.3
도시사람과 농촌사람	고교 이하	—	6.1	6.7	6.1
	대학 이상	7.2	6.9	6.9	6.4
영남사람과 호남사람	고교 이하	—	6.7	6.9	6.3
	대학 이상	6.5	7.0	7.3	6.9
총 평균	고교 이하	—	6.5	6.8	6.3
	대학 이상	7.4	7.4	7.3	7.2

가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흔히 전통적으로 갈등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 다시 말해 새로운 상황의 발전이나 사회변동의 결과로 발생한 적대집단이 아니라, 옛날부터 적대집단으로 우리 사회에서 간주되어 온 사례로는 영남사람과 호남사람, 도시사람과 농촌사람,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를 들 수 있다. 이들 사이는 지역감정, 지역격차, 세대갈등이라는 말로 보통 표현된다. 〈표 4〉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이 세 경우는 절대적인 갈등정도의 평가와 관찰집단들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의 차이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이들 항목에 대한 갈등평점은 이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7개의 관찰(또는 비교) 집단들 거의 모두에서 갈등평점이 6.0에서 7.0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전통적인 갈등집단은 갈등정도에 있어서는 비교적 높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연령 및 학력에 의해 구분되는 관찰집단들 사이에서 평가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이 특색이다. 약간이나마 의미있는 차이를 듣다면 그것은 대학 이상 학력집단의 평가가 고교 이하의 경우보다 약간 더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업무상의 문제 또는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흔히 갈등상태에 있다고 간주되는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 대해서는 평점은 대부분 5점이 넘지만, 비교적 다른 갈등집단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치상황과 관련하여 발생된 군과 민간 사이의 갈등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들과는 뚜렷히 구분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학력집단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게 부각된다. 고교 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군과 민간 사이의 갈등의 정도가 보통정도로, 또는 그 이하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표 4>에 제시된 8가지 경우 가운데 가장 긍정적인 평가에 속한다. 이와 비슷한 긍정적인 평가로는 공무원과 시민 사이에 대한 고교 이하 학력집단의 평가가 있을 뿐이다. 반면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군과 민간 사이에 갈등이 매우 심한 것으로 (평점 7점대)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인 집단간의 갈등상태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8개의 개별항목의 총 평균을 통해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는 우리 사회의 성원들은 우리 사회가 매우 심한 집단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평균 갈등점수가 6.3에서 7.4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 더욱 첨예한 갈등의 인식이 나타난다. 한편 연령집단별로는 학력을 통제했을 때 별로 의미있는 갈등인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부정부패와 소득격차를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과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또한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겪어 온 빠른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소득격차에 대한 문제, 기업가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에 대한 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요인은 아마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관념일 것이다. 한편 부정부패에 대한 광범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 내지 상류층에 대한 관념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불평등의 관념을 보기 위해 <표 5>에 경제성장의 혜택이 주로 어떻게 배분된다고 보는가,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표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혜택은 압도적으로 경영주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도시에 유

〈표 5〉 불평등구조 및 상류층에 대한 인식

		대 학생	20대	30대	40대
1. 경제 성장의 혜택					
경영주 대 노동자 (경영자 +10, 노동자 -10)	고교 이하 대학 이상	— 8.0	7.9 9.0	6.8. 6.5	5.8 7.0
지역사이에(도시 +10, 농촌 -10)	고교 이하 대학 이상	— 8.0	4.5 9.0	7.0 6.6	6.4 6.5
2. 노동자들이 기업가들로부터 정당한 대우 를 받고 있는 정도 (10점 : 정당, 0점 : 아주 부당)	고교 이하 대학 이상	— 3.0	5.5 3.8	4.7 4.5	5.4 5.0
3. 부자들은 상당수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다(찬성 %).	고교 이하 대학 이상	— 76.2	51.9 74.6	60.8 63.4	51.2 57.3
4. 우리 사회에서는 연줄이나 집안 배경이 없 으면 출세하기 힘들다(찬성 %).	고교 이하 대학 이상	— 84.2	70.9 76.3	72.8 70.7	67.0 56.7
5. 일제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절 잘하는 사람 이 잘산다(찬성 %).	고교 이하 대학 이상	— 69.7	40.0 48.3	51.6 43.4	57.0 44.2

리하게 분배되는 것으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협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의 배분에 있어서는 20대에서 심한 불평등 의식을 보이며, 도시와 농촌 사이의 배분에 있어서는 20대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를 20대 집단은 현대 학생 층보다도 오히려 더 경제 성장의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대로 같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평등 분배의 인식은 30대 이후 연령집단에서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즉, 불평등의식에 관한 한 명백한 세대 효과가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이 기업가들로부터 어느 정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노동자 층과 하층을 많이 포함하리라고 생각되는 고교 이하 학력집단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평균하여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시 대학생 층이다. 그리고 젊은 층은 대학 출신일수록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 고학력 층, 중산층이 오히려 노동자들의 입장에 대해 더 크게 동조 내지 동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심각한 불평등과 갈등에 대한 인식은 자연히 상류층의 부도덕성과 부정에 대한 인식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연관성은 쉽게 증명된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부자들은 상당수가 좋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연줄이나 배경이 없으면 출세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일반적으로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고 이 집단에서는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연줄이나 배경을 출세의 조건으로 보는 시각은 20대에서는 대학 이상 학력 중에서 더 부자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20대층에서도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30대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이미 ‘출세’한 사람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고학력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필요로 한 인간관계의 망을 갖고 있다는 점에 의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비판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학력의 효과는 명백하며, 그 효과가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얇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주로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 명백한 세대효과를 살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시대부터 계속 비도덕적인 사람(변절 잘하는 사람)이 잘산다는 데 대해서도 찬성을이 거의 과반수에 이른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보다는 고교 이하 학력층에서 비교적 더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고교이하 학력집단에서도 연령이 높은 층에서 더 이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20대는 예외). 도덕적 변절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태도는 역시 대학층에서 관찰된다. 이에 대한 태도는 대학생층과 기타 응답자들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존재한다.

V. 일반가치지향

조사자료에서 추출된 일반적 가치항목, 또는 행동지향 항목은 4가지이다.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책임이 정치나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가, 개인을 희생하면서라고 사회를 질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는 현재를 회

생시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어리석은 일인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3가지 질문과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이들 각각의 질문을 각기 다른 4가지 일반적 가치지향의 지표로 설정하였다. 첫번째 것은 ‘보수주의 대 혁신주의적’ 지향의 지표로, 두번째 것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적’ 지표로, 그리고 세번째 것은 ‘미래지향 대 현재지향’의 지표로 삼았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남녀평등관’을 제는 지표로 생각하였다. 한편 우리의 전통적인 이상적 가치지향을 보수주의, 집단주의, 미래지향, 남녀불평등지향으로 설정할 때, 지난 30여년간의 사회변동이 우리 사회의 가치지향에 대해 갖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이는 이 글의 논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여기에서는 논하지 못함).

〈표 6〉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일반적 가치지향은 현실적 경험과 사회적 상황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리라고 생각되는 각종 현실문제에 관한 인식에서보다는, 비교적 뚜렷한 차별현상을 보인다. 우선 첫번째 혁신주의적 지향에 대해서는 30대 고교 이하 학력집단의 예외를 빼면, 교육효과와 연령효과가 다 같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효과는 특히 현재의 대학생층과 20대 연령층에서 뚜렷하다. 20대와 30대 사이의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의 차이는 엄청나, 이로부터 부분적인(대학 이상 학력층에 한하여) 세대효과의 가능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여하간 전반적으로는 아직 보수주의적 지향이 강화

〈표 6〉 일반적 가치 (찬성 %)

	대 학생	20대	30대	40대
ㄱ. 생활이 어려운 것은 정치나 사회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 vs. 혁신주의)	고교 이하	—	41.8	47.1
	대학 이상	64.2	60.0	45.8
ㄴ. 개인을 회생해가면서 사회를 잘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단주의 vs. 개인주의)	고교 이하	—	29.1	37.6
	대학 이상	58.0	50.8	62.4
ㄷ. 장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미래지향 vs. 현재지향).	고교 이하	—	34.5	31.2
	대학 이상	42.7	46.6	46.7
ㄹ.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남녀불평등 vs. 남녀평등).	고교 이하	—	69.1	55.1
	대학 이상	52.1	43.3	48.5

나 20대 이하의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혁신주의적 지향이 훨씬 우세함을 알 수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적 지향은 학력집단 사이에 매우 뚜렷한 차이가 난다. 우선 고교 이하 집단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지향이 압도적이고 그 경향은 보통상식과는 달리 낮은 연령집단에서 더욱 뚜렷하다. 반대로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다수가 개인지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20대 고교 이하 학력집단의 매우 높은 집단지향성은 아마도 현실성을 무시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학 이상의 학력집단에서의 연령효과는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집단주의적 지향과 미래지향성, 개인주의적 경향과 현재지향성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의 정당성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조사의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표 6>에서 나타나듯이 고교 이하 학력집단에서 현재지향성은 매우 낮다. 반면 대학 이상 학력층에서는 비교적 높은 현재지향성이 관찰된다. 그러나 이 집단에서도 약간이나마 미래지향성이 현재지향성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학력을 통제할 때 연령 내지 세대효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표 6>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한가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능력평가에서 고교 이하 학력집단이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 비해 훨씬 ‘똑같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능력의 측면에서의 남녀평등의 인식은 연령별로 별 뚜렷한 차이의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결과는 남녀문제에 관한 관념적인 대학교육의 내용보다 오히려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가령 대학교수사회에서의 남성지배, 대학생의 남녀비율, 남녀졸업생의 진로에 있어서의 차이 등이 실제의 가치지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반적 가치지향에 있어 교육환경의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환경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근대성을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다. 즉, 혁신지향성, 개인주의적 지향, 현재지향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전통적인 관념의 변화를 억제하는 경향도 보인다. 남녀능력 평가에 있어 대학교육효과가 보다 큰 불평등 관념과 연관된다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VI. 맷 는 말

이 글은 원래 전후세대의 사회의식을 밝히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글에서 중심적인 관심사는 아마도 사회의식이 변화에 대한 세대의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시계열적인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자료의 결여로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는 없었다. 대신 최근의 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의식에 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세대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하기 위해 의사종단적 분석개념에 따라 자료를 정리·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의식은 각종 현실문제의 심각성, 여러 사회 현상의 상황변화 및 갈등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인 가치지향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시계열적 분석자료가 없는 점 이외에 자료상의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원래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의 원천이 되는 국민의식조사가 이 글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자료의 제약을 크게 받고 있으며, 이 글에서 사용된 각종 개념의 구성도 다분히 인위적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개개인의 사회의식은 그들의 경험세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쓰여졌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세계의 주요요소로서 역사적인 주요 사건의 경험, 교육수준과 관련된 경험, 그리고 생활주기에 따른 경험의 세 가지를 구분하고 그 대표적인 지표로서 세대, 학력, 연령을 택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상 사회의식에 대한 고찰은 학력과 연령을 중심으로 행할 수 밖에 없었다. 교차분석자료에서는 세대의 효과는 결국 연령효과와 혼합되어 질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설명요소로서의 세대와 연령의 영향의 구분은 분석결과에 따라 개괄할 수 밖에 없었다.

결과분석에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의 하나는 우리 사회의 성원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사회의식’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각종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러가지 상황이 더 나쁜 방향으로 전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한 사회의 통합의 정도에 대한 인식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집단갈등에 대한 인식

도 매우 날카롭다. 전통적인 집단갈등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외에 많은 새로운 갈등이 사회변동과 특수한 요소들로 인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 가치지향에서 는 혁신주의, 개인지향성, 현재지향성이 차츰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가치지향에서는 아직도 각종 현실문제나 현실적인 갈등인식에서와는 달리 사회의 전반적인 합의는 찾기 힘들다. 가치지향은 비교적 양분되어 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의 효과는 구체적인 상황적인 맥락에서 제기되는 판단 또는 평가에서 보다는 일반적인 지향 또는 이념적인 지향과 연관된 것에서 더 뚜렷히 부각된다. 거꾸로 개개인에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말로 개별적인 의미가 강한 항목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회의식에 관한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세대, 연령의 효과는 찾기가 힘들다. 또한 물질적인 의미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강하지만 비물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뚜렷하다. 즉, 관심항목의 성격도 어떠한 요소가 그 항목에 대한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의식에 대한 설명요인으로서 학력과 연령·세대를 비교할 때 학력(또는 교육환경)의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항목에서 연령의 효과가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고교 이하의 학력집단에서는 연령의 효과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데 비해 대학 이상 학력집단에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교 이하 학력집단과 태도나 인식이 비슷해져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효과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최근에 올 수록 고교 이하의 교육환경과 대학 이상의 교육환경 사이의 간격이 가치나 이념지향적인 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데에서도 그 이유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뚜렷한 세대의 효과는 사회제도, 이념적 지향 및 계급적 불평등의 인식과 같은 항목에 국한하여 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세대의 효과도 연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의가 대학 이상의 학력집단에 한하여 발견된다.

학력이 사회의식의 설명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고교학교까지의 교육환경과 대학의 교육환경 사이에 일종의 단절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고등학교까지는 전체교육이 체제긍정적 성격을 띠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이전 세대에 대해 행동 및 가치지향에 있어 수렴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대학교육환경은 1960년대 이후 줄곧 상당한 정도 이전세대에 대해 격리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대학출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대학출신과 비슷한 의식을 보이는 것은 상당한 연령의 수렴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한편 세대효과가 주로 대학 이상 학력 층에서만 나타난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전후세대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뜻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세대간의 갈등이 대체로 이념적 갈등에 기초하고 있으며, 옛 이념에 대한 도전이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한국동란이라는 역사적 사건 경험의 사회화 여부가 개개인의 이념적 위치 설정에 매우 커다란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을 시사 내지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초고를 읽고 많은 도움말을 주신 양종희 교수께 감사드린다.